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5.(수) 11:00 < 3.6.(목) 조간 > 배포 2025. 3. 5.(수)

한국-스페인, 첨단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 넘는다.

- 인공지능·첨단소재·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동R&D에 총 270억원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3월 5일(수)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과학혁신부와 함께 제2차 한-스페인 산업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
양국은 '15년부터 전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연구(R&D)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간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, '23년부터는 협력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의 산업 전략을 고려한 중대형 공동R&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, 양자 공동R&D 과제를 지원*해 왔다.

* '23년 모빌리티, '24년 재생에너지 등에 4개 과제, 총 256억원 지원(양국 합산)

이번 공동위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테레사 리에스고 스페인 과학혁신부 혁신차관보는 AI, 첨단소재, 반도체 등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양국의 중점 기술협력 분야로 '25년 인공지능·반도체, '26년 첨단소재·나노소재를 선정하였다. 양국은 중점 협력 분야에 총 270억원 규모(양국 합산)의 공동R&D를 지원할 계획이다.

금번 선정된 중점 기술협력분야(인공지능, 첨단소재, 반도체 등)는 모두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로서, 양국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이를 빠르게 산업에 적용·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"금번 공동위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, 한-스페인 간 기술협력 기반을 한층 탄탄하게 강화한데 의의가 있다"고 밝히며, "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

패권 경쟁에 대응해 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하고, 유망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양국은 공동위에 이어 금년 4월 독일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유레카데이* 등을 활용하여 양국 산학연의 폭넓은 기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유망한 기술협력 과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 한국-유레카 회원국 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('25.4.2~3일, 독일 하노버)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용민 (044-203-453)
			팀 장	이윤진 (044-203-4535)
		담당자	사무관	고운정 (044-203-45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